

제3회

# 서울 문화예술 포럼

Seoul Arts and Culture Forum

##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와 정책방향 모색

2023. 03. 31. (금)  
15:00

청년예술청 그레이룸

YouTube 스팍TV

동행·매력  
투명·서울

시민환  
자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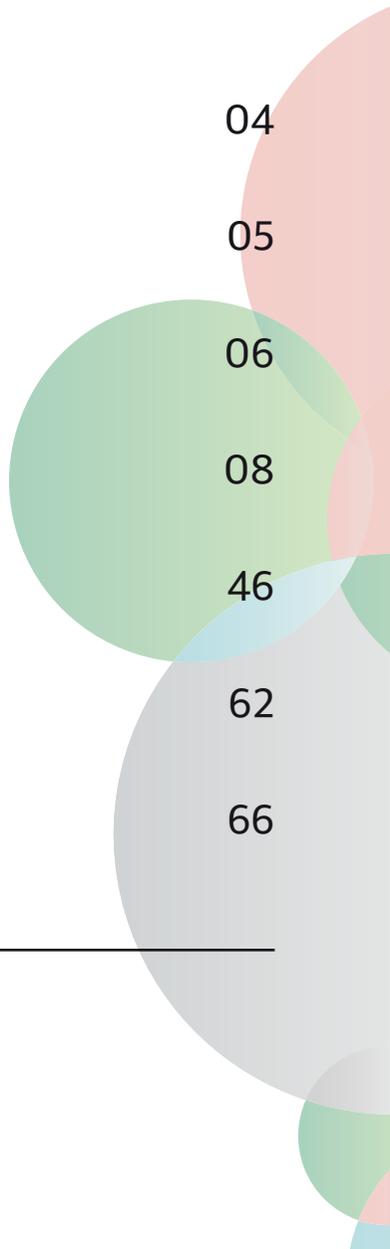
서울문화재단

목 차

---

서울문화예술포럼 소개	04
프로그램 안내	05
사회자 및 공연진	06
주제 발제 ①	08
주제 발제 ②	46
초청 강연	62
서울문화예술포럼 운영위원회	66

---



## 운영 취지

- 문화정책 이슈, 문화예술의 미래가치 등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담론 형성
- 서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전문가 교류 협력 및 거버넌스 역할

## 추진 경과

- 2022. 1. 26. 서울문화재단 3대 전략, 10대 혁신안 발표
- 2022. 6. 10. 서울문화예술포럼 운영 준비회의 개최
- 2022. 6.~ 서울문화예술포럼 운영위원회 구성
- 2022. 7. 서울문화재단 新 전략체계 'ESG 참여확대' 경영목표 수립
- 2022. 7. 28. 서울문화예술포럼 추진계획 수립
- 2022. 9. 7. 서울문화예술포럼 출범,  
제1회 서울문화예술포럼 '포스트코로나 문화예술 전망과 서울의 문화전략' 개최
- 2022. 11. 29. 제2회 서울문화예술포럼 '기후위기와 문화예술' 개최
- 2023. 2. 9. 2023년 서울문화예술포럼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운영 방향

-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과 거버넌스 확장을 위해 각 분야의 예술가, 문화기획자, 전문가 다수가 참여하여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미래지향적인 주제들을 폭넓게 제시
- 시민 문화향유와 트렌드, 지속가능한 예술창작생태계,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시대의 문화공간 등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정례적 개최

## 행사 개요

- 행사명 : 제3회 서울문화예술포럼
- 주 제 :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와 정책방향 모색
- 일 시 : 2023. 3. 31.(금) 오후 3시
- 장 소 : 청년예술청 그레이룸 (유튜브 스팩TV 동시 중계)

## 주요 내용

###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와 정책방향

- '2022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 공유, 조사 결과의 특징과 핵심 키워드 도출
- 문화향유 활동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문화향유 활동의 유형을 살펴보고, 경험 방식에 따른 전환적 관점을 비롯한 다각적인 정책방향 모색

### 사회트렌트 변화와 문화향유

- 코로나의 정점을 지난 현 시점의 사회트렌드를 짚어보고 시민 라이프스타일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향유 경험과 향후 전망 논의

## 행사 일정

사회 : 김지현(서울문화예술포럼 운영위원, 코리안컬처리더스 대표)

15:00   개식	행사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오프닝 공연 시민예술가
15:15   개회사 및 인사말씀	서울문화예술포럼 공동회장 개회사 박상원 (재)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최태지 前 국립발레단장 서울문화예술포럼 운영위원장 인사말씀 이창기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15:25   주제발제	① 2022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 및 핵심 키워드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② 문화향유 활동의 변화와 정책방향 최보연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16:05   질의 답변	질의 답변 및 토론 - 발제자, 사회자
16:25   초청 강연	사회트렌드 변화와 문화향유 윤덕환 (주)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사
17:05   질의 답변	질의 답변 - 강연자, 사회자

## 사회자



### 김지현

(사)서울튜티앙상블 예술감독을 역임하였고, 현재 코리안컬처리더스 대표이자 가톨릭대학교 음악과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 코리안컬처리더스

예술을 통하여 문화나눔을 실천하고 시민들에게 새로고 다채로운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문화예술단체로, 2005년부터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활발한 예술 활동을 펼쳐 왔다. 현재는 대중과 소통을 목적으로 다변화되는 문화예술의 흐름을 반영,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융복합 공연까지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 시민예술가 오프닝공연

### 공연 취지

문화향유의 주체인 시민예술가와 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공연으로, 시민예술가가 작곡한 곡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가사를 붙여 노래한다.

### 공연진 소개

#### 김서우(13세)

모당공원작은도서관 '어린이노래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직접 시를 쓰고 시에 곡을 붙여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각자 만든 노래를 발표도 하고 공연도 한 번 했었어요. 이번 공연에 참여하게 되어 떨리고 기쁩니다!

작년 가을 작곡창작반 수업에 참여하며 처음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짧은 글을 적어 보라고 해서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었고, 현재의 나의 생활도 돌아보다 보니 그저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토대로 노래를 만들어보라는 선생님의 권유로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윤여옥(77세)

환갑이 지나 오카리나를 동네문화센터와 숙대 평생교육원 전문강사반에서 공부했고, 칠순에는 우쿨렐레를 3년정도 배워서 주변 친구들과 제가 다니는 성당에 가르치는 봉사를 했습니다. 또 고양시의 핸드벨 연주팀에서도 활동중이라 노년의 쓸쓸함 없이 아주 활기차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 김정선(77세)

#### 김다원(27세)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작곡 전공
- 전문사 재학 중
- 앙상블 piflow 단원(피아노, 작곡)

#### 양진영(25세)

- 가톨릭대학교 음악과 성악 전공 졸업
- 오페라 "Cosi fan tutte", "Le Nozze di Figaro" 등 다수 작품 참여

#### 이자원(35세)

- JTBC 슈퍼밴드 2019
- 통일부 주최 유니뮤직레이스 2016 은상(통일부장관상)
- '불후의명곡' 등 다수 공연/방송 세션

#### 천상혁(32세)

- 정규앨범 [I'll See You There] 외 다수 발매
- 전 호주 음악대사 'Tommy Emmanuel'과 협연
- 제13회 어쿠스틱기타 경연대회 대상

## 공연프로그램

### 1. 가로등 하나 (김서우 글/작곡)

- 노래 : 김서우 / 기타 : 이자원, 천상혁

### 2. 이 나이 (윤여옥 글/작곡)

- 노래 : 윤여옥 / 우쿨렐레 : 김정선 / 기타 : 이자원, 천상혁

### 3. 아름다운 세상 (원곡 : 박학기)

- 노래 : 김서우, 윤여옥, 김정선, 김다원, 양진영 / 기타 : 이자원, 천상혁

## 곡 가사

### 가로등 하나

김서우 글/작곡

가로등 하나 혼자 우두커니 서 있다.  
주변엔 다 나무들뿐인데  
가로등 주변에만 나무가 없다.  
가로등 혼자 친구가 없다.  
나무들은 예쁘게 장식하는데  
가로등은 예쁘게 장식못한다

나무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 없는데  
가로등은 필요해  
가로등 하나 혼자 우두커니 서 있다.  
외롭게 혼자 혼자인 채로 [1절]

나무들은 예쁘게 장식하는데  
가로등은 예쁘게 장식못한다  
나무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 없는데  
가로등은 필요해

가로등 하나 혼자 우두커니 서 있다.  
외롭게 혼자 혼자인 채로

가로등 하나 혼자 우두커니 서 있다.  
주변엔 다 나무들뿐인데  
가로등 주변에만 나무가 없다.  
가로등 혼자 친구가 없다.

가로등 하나 혼자 우두커니 서 있다.

외롭게 혼자 혼자인 채로

### 이 나이

윤여옥 글/작곡

어떻게 이 나이까지 살아왔을까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구비구비 갈래길  
이 나이가 나는 좋아  
젊고싶지않아  
하루하루 감사하며  
그렇게 살고파

주제 발제 ①

# 2022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 및 핵심 키워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서우석**



문체부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  
3기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시 문화시민도시정책  
위원회 위원장과 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에서 재직중이며,  
서울비전 2030위원회 위원, 한국지역문화학회 부회장,  
한국조사연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제3회 서울문화예술포럼>

##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 및 핵심키워드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일시: 2023년 3월 31일(금) 장소: 청년예술청

## 조사방법 및 범위

구분	서울시민	문화관심집단	문화 약자 계층	
			장애인	다문화 이주민
조사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일반시민	· 서울시 통합회원 및 서울문화재단회원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지체/청각/시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 이주민
표본 크기	· 5,011명	· 7,926명	· 313명	· 212명
표본 배분	· 성/연령/권역별 계급군 비례배분	-	· 지체/시각/청각 장애유형별 임의배분	· 거주(활동) 지역별 임의배분
표본 추출	· 계통적표집	· 비확률 추출	· 서울시 장애인지원센터 방문 (서비스 이용)자중 유의추출 1)	· 서울시 다문화지원센터 방문 (서비스 이용)자중 유의추출 2)
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와 면접조사 병행	· 온라인 조사	·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	·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
조사 기간	· 2022.11.22.~2022.12.30.		· 2022.11.28.~2022.12.30.	
조사 기관	· 서울문화재단(조사 및 분석 대행: ㈜서던포스트)			

## I. 주요 트렌드

1. 코로나로부터 회복
2. 영화 중심 관람 활동 변화
3. 온라인 활동의 비중 확대
4. 예술 시장 대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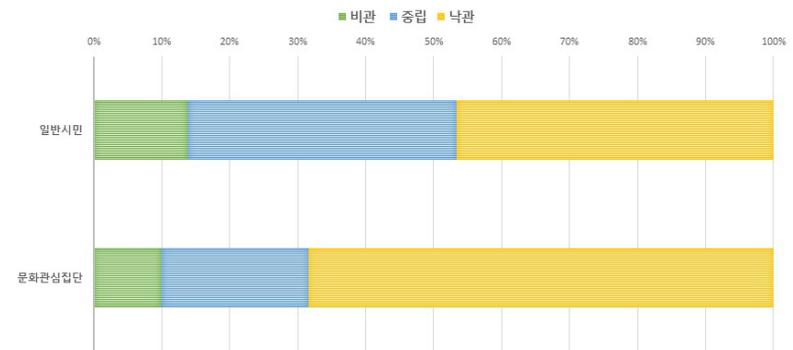
## 전체 구성

- I. 주요 트렌드
- II.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
- III. 문화약자를 찾아서

## I-1. 코로나로부터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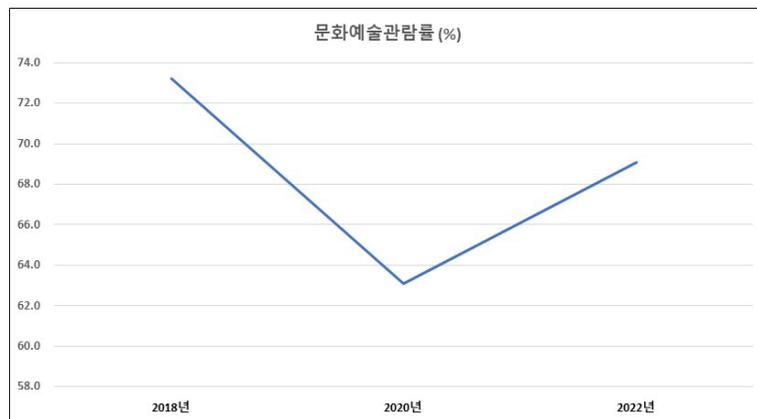
## 문화예술 활동 회복 전망

"문화예술 활동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 (%)



7

## 문화예술관람



6

## 문화예술 활동 회복 비관 전망 이유 (1순위+2순위, %)

	일반시민	문화관심집단
코로나 이후로 활동 자체가 줄었다	39.8%	43.4%
(자연스레) 사람들이 많은 곳은 기피하게 되었다	38.5%	42.1%
전염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함	26.3%	18.5%
다른 여가활동이 더 좋다	24.3%	16.0%
문화예술 관람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21.0%	14.8%
온라인을 통한 관람이 더 편리하다	20.8%	29.3%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스트레스의 영향	16.3%	9.5%
현재도 충분히 많이 관람하고 있다	9.3%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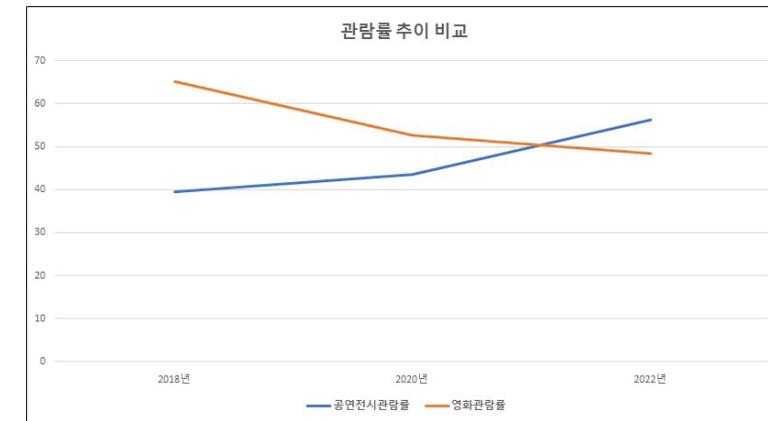
8

## 코로나로부터 회복 추세와 전망

- 문화예술관람 경험의 수준이 2018년에는 미치지 못하나 2020년보다는 상향 되었음
-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될지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이 비관적인 전망 보다 높지만, 일반 시민의 경우 과반을 넘지 못함
- 문화관심집단에서는 일반 시민 보다 낙관적인 전망이 더 높아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남
- 비관적인 전망의 이유로는 코로나 시기 활동 위축이나 전염병 위험 등이 제기됨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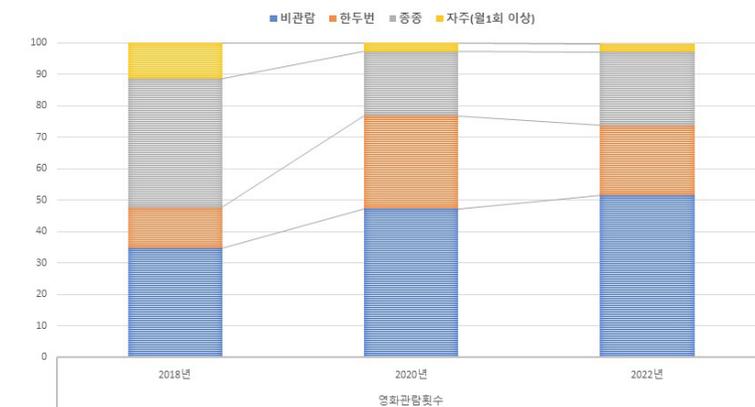
## 공연전시 관람과 영화 관람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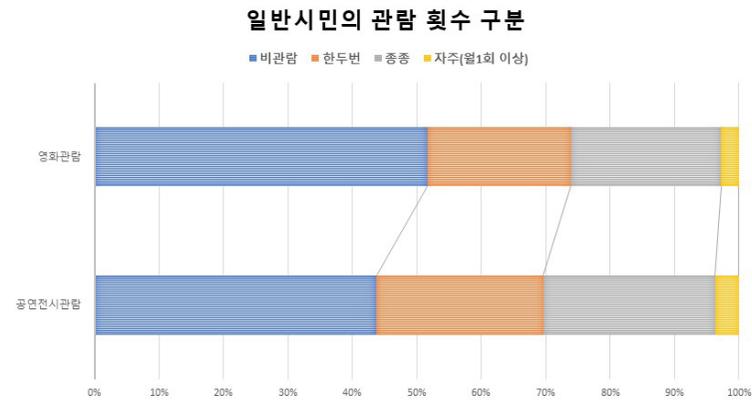
## 1-2. 영화 중심 관람 활동 변화

## 영화 관객층 위축



12

## 일반 시민 관람층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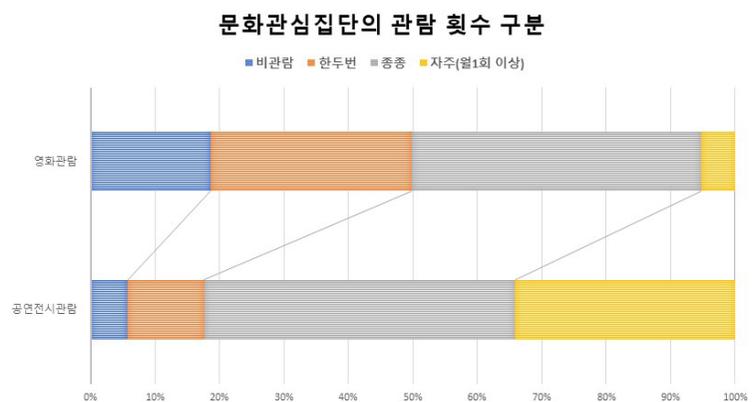
13

## 영화 중심 관람 행동 변화

- 코로나 감염 시기를 거치면서 영화관람률보다 공연전시관람률이 높아지는 상황 나타남
- 영화관람빈도를 보면, 전체 관람률이 회복되지 않는 것과 함께 자주 보던 관객층의 비율도 회복되지 않고 있음
- 특히, 문화관심집단을 보면 영화보다 다른 공연전시관람의 비중이 압도
- 그동안 영화 관람에 편중되었던 문화예술관람 현상의 변화 추정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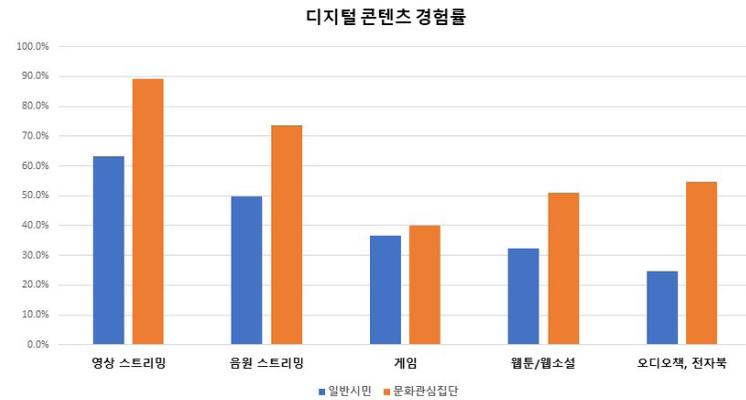
## 문화관심집단 관람층 구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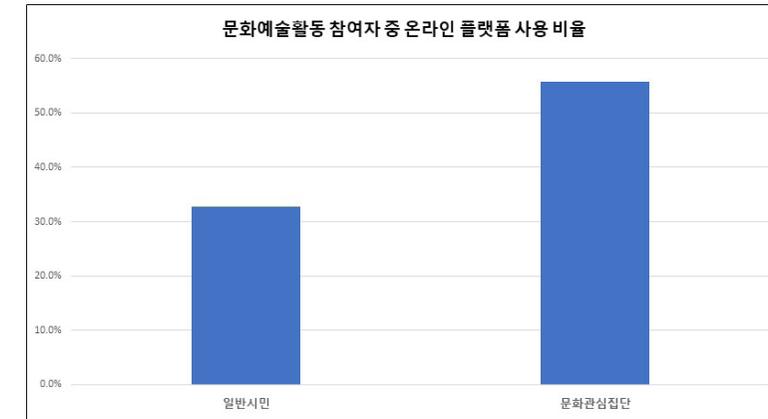
## I-3. 온라인 활동의 비중 증대

## 디지털 콘텐츠 소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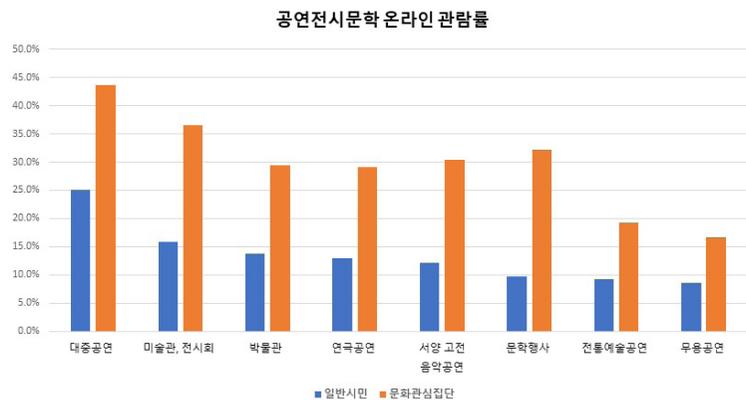
17

## 온라인 플랫폼



19

## 공연전시문학 온라인 관람 활동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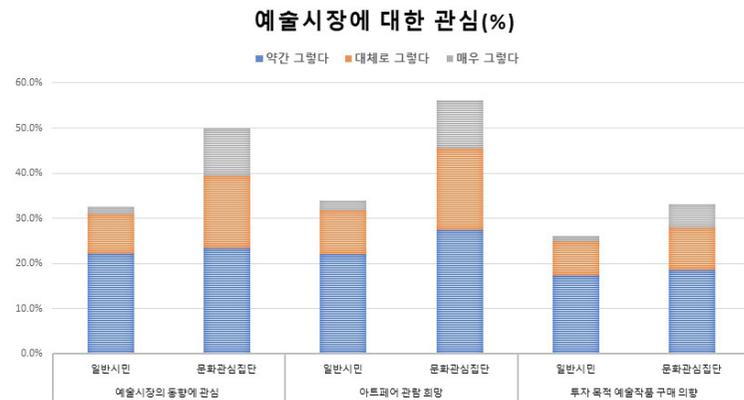
## 온라인의 편재성

- 문화예술 소비와 활동에서 차지하는 온라인의 중요성은 점점 더 다각화, 보편화, 일상화 되고 있음
- 디지털 콘텐츠 소비와 같이 온라인을 통한 문화예술소비 활동 수준 확인
- 코로나 감염 상황에서 증가한 공연전시문학의 온라인 관람 기회의 지속 가능성 논의
- 문화예술 활동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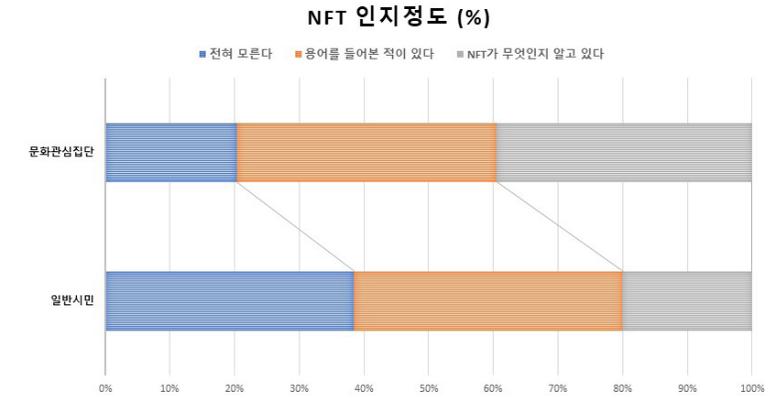
## I-4. 예술 시장의 대중화

### 예술시장에 대한 관심 확산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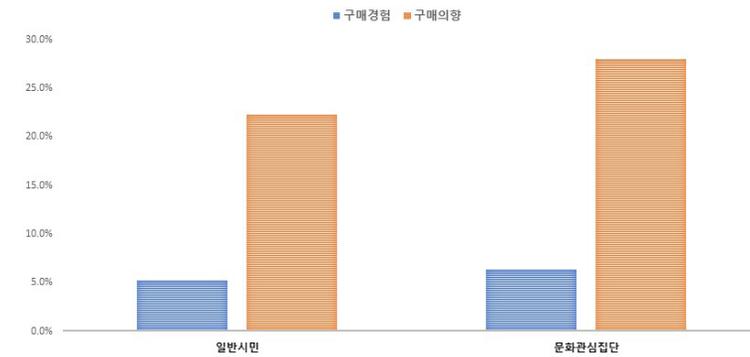
### NFT 인지 정도



23

### NFT를 통한 작품 구매

NFT를 통한 작품 구매 경험과 의향 (%)



24

## 예술시장에 대한 관심 대중화

- 과거 소수에 머물렀던 예술시장의 구매층이 최근 확산된 결과가 시민과 문화관심집단의 예술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남.
- NFT를 통한 작품 구매 경험과 의향의 격차를 볼 때 시장 성장의 전망 가능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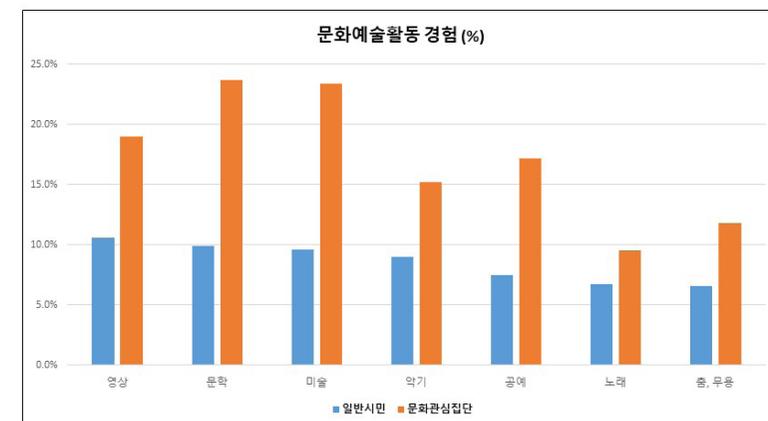
## II-1. 문화예술 활동 참여

## II.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

1. 문화예술 활동 참여
2. 거주지의 문화시설 이용
3. 도서관의 중요성
4. 동네문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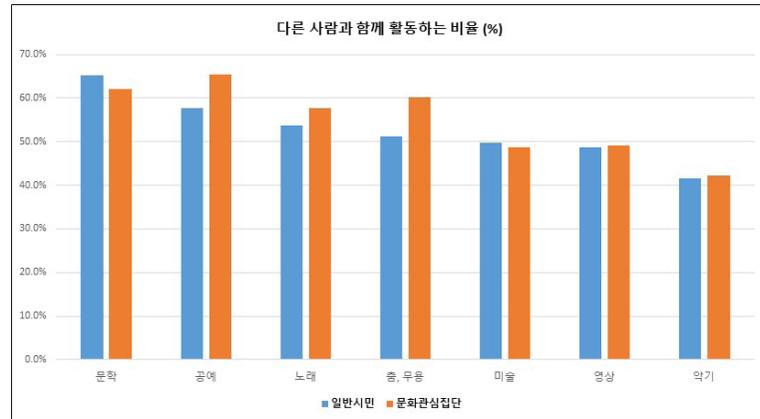
26

## 문화예술활동 참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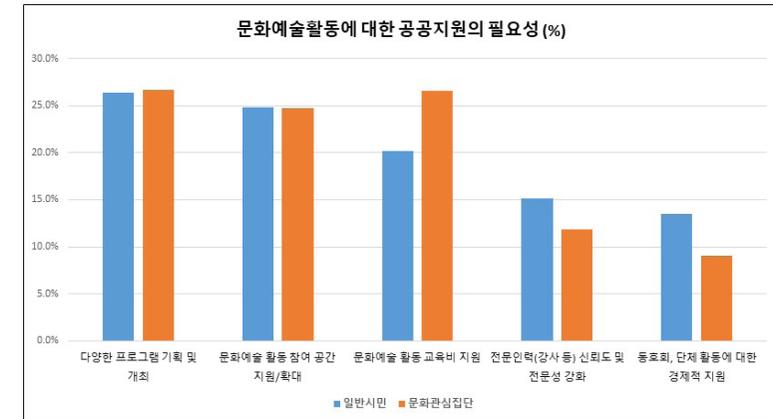
28

## 문화예술활동의 사회적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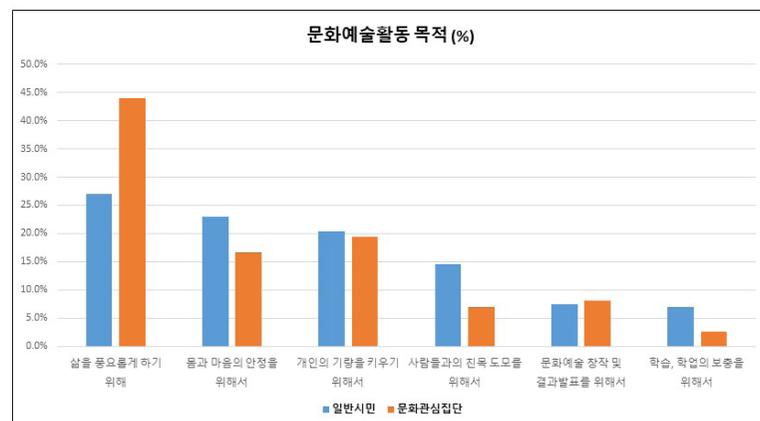
29

##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공지원



31

## 문화예술활동 참여동기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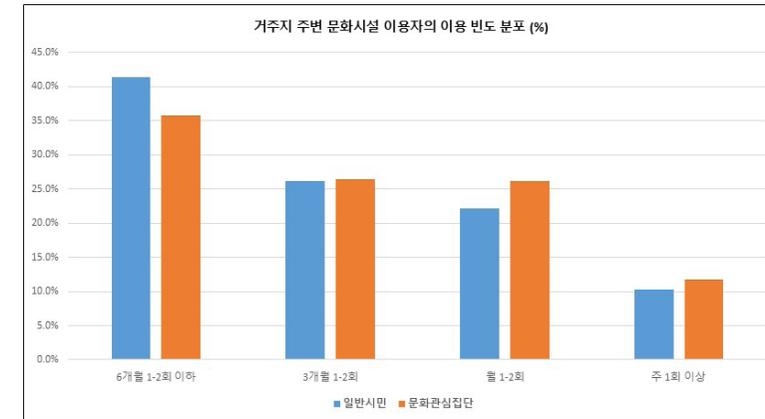
## 문화예술활동 현황과 시사점

- 문화예술활동은 일반 시민의 경우 장르별로 10% 내외의 참여율 보이며, 문화관심집단의 경우, 특히 문학과 미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지만, 대체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화예술활동 수행
- 문화예술활동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 활동의 사회적 성격을 보여줌
- 문화예술활동의 참여 동기를 보면 문화관심집단에서 풍요로운 삶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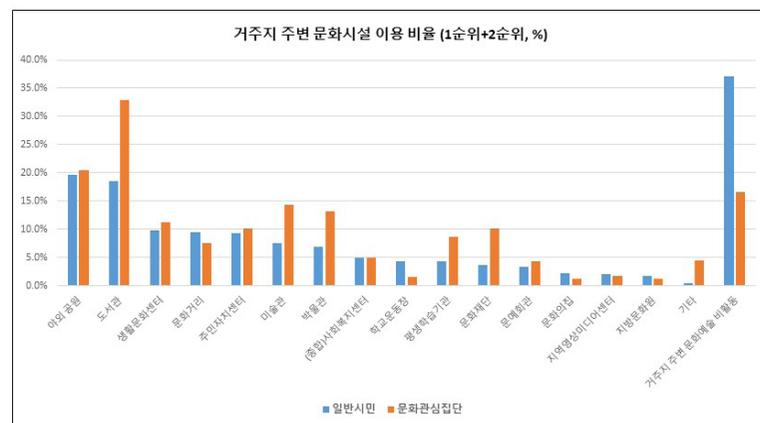
## II-2. 거주지의 문화시설 이용

### 거주지 문화시설 이용 빈도



35

### 거주지 문화시설 이용



34

### 거주지 문화시설 이용의 현황과 시사점

- 전체적으로 거주지 주변 문화시설 이용 비율은 시민의 경우, 62.9%, 문화관심집단의 경우 8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대체로 시민들은 성향이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시설들 중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 주변 문화시설로서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은 야외공원과 도서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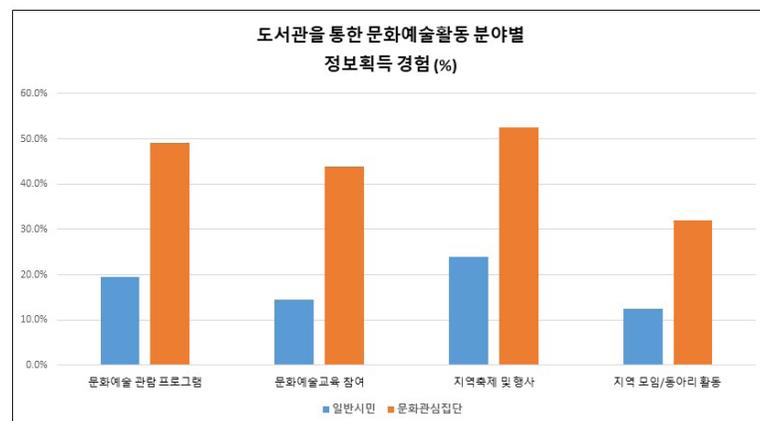
36

### II-3. 도서관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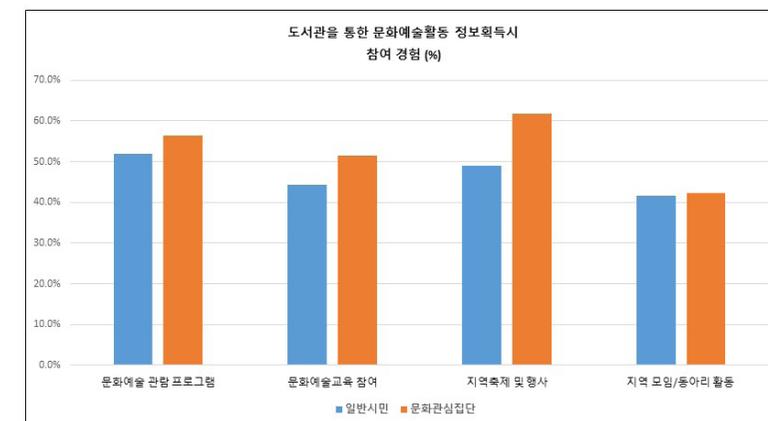
### 도서관과 문화예술활동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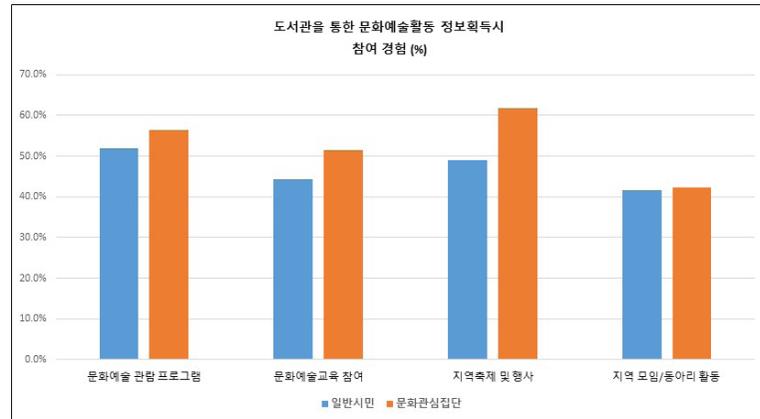
### 도서관과 문화예술활동 정보



### 도서관과 문화예술활동 참여



## 도서관과 지역사회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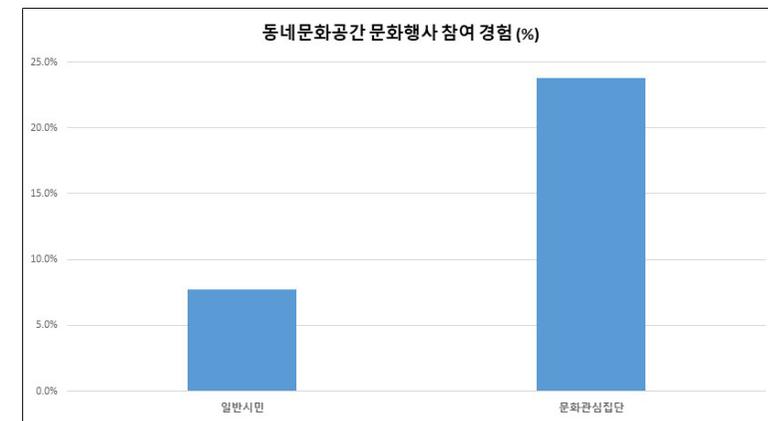
## II-4. 동네문화공간

### 도서관과 문화예술활동, 지역사회

- 도서관이 문화예술활동 참여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접근 경로가 되고 있음
- 도서관을 통한 문화예술활동 정보 획득한 경우, 참여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
- 도서관을 통한 문화예술활동 참여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 보여줌
- 수동적인 관람활동을 넘어서 적극적인 문화예술활동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데 도서관이 가지는 중요성이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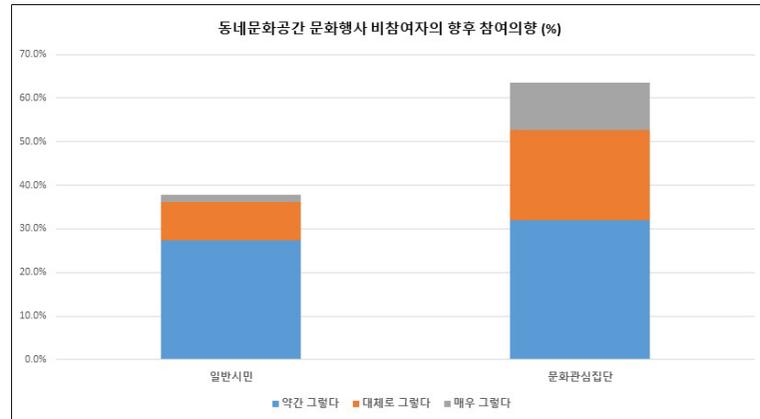
42

### 동네문화공간 문화행사 참여 경험



44

## 동네문화공간 문화행사 참여 경험



45

## III. 문화약자를 찾아서

1. 문화약자에 대한 인식
2. 문화약자 가능성 탐색
3. 문화약자로서 장애인 탐색
4. 문화약자로서 다문화 가족 탐색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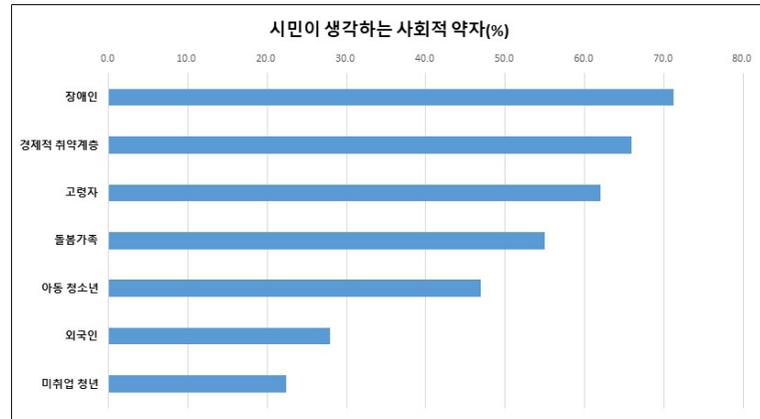
## 동네문화공간의 부상 가능성

- 동네문화공간에서 열리는 소규모 문화행사를 경험한 비율은 아직 높지 않으나, 기존의 공공기반문화시설 이용률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없음
- 동네문화공간 문화행사의 비경험자들의 참여 의향이 상당히 높은 점을 볼 때 동네문화공간이 지역의 주요 문화거점 공간으로 기능할 가능성 전망

46

## III-1. 문화약자에 대한 인식

## 사회적 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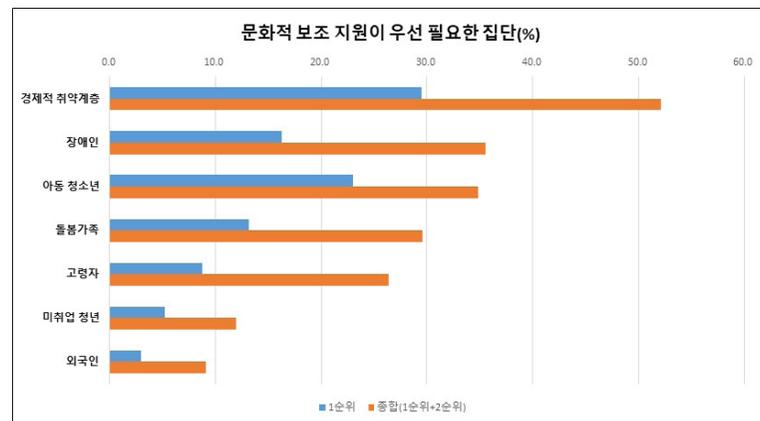
49

## 문화약자로서 사회적 약자

- 대체로 사회적 약자를 문화적 지원과 보조가 필요한 문화 약자로서 인식
- 경제적 취약 계층 중심의 기존 문화복지 보다 다양한 문화 약자에 대한 관심 필요
- 상대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문화약자로 인식하는 수준 높음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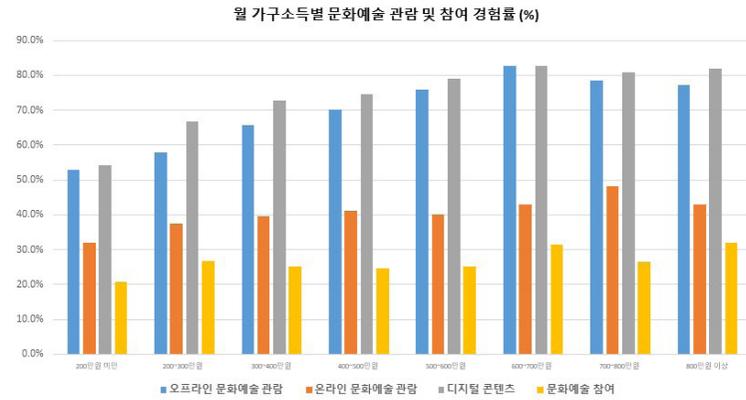
## 문화적 보조와 지원



50

## III-2. 문화약자 탐색

##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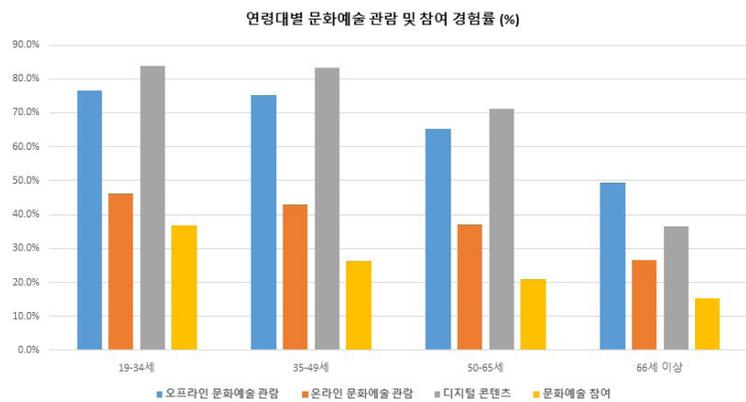
53

## 가구소득과 연령대별 차이와 문화약자

- 월 가구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과 65세 이상 집단이 문화약자 집단으로 분류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남
- 특히, 66세 이상 집단은 모든 종류의 문화참여 활동에서 낮은 수준을 보임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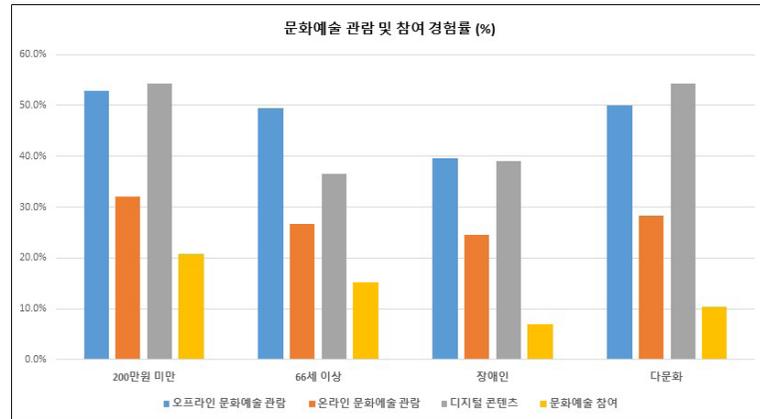
## 연령대



54

## III-3. 문화약자 취약성 비교

## 문화약자 취약성 비교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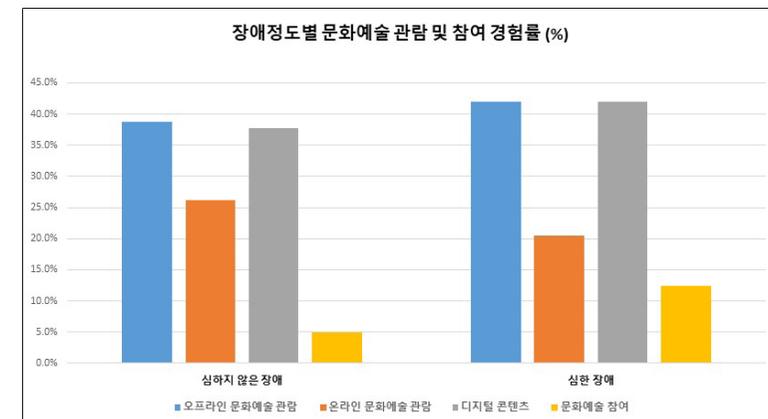
## III-4. 문화약자로서 장애인

## 문화약자로서 취약성

- 네 종류의 문화약자 집단이 문화통계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취약성을 보이며 관심과 지원 필요성 시사
- 장애인의 경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짐
- 장애인과 다문화의 취약성은 다른 분야보다 적극적인 문화예술활동 참여에서 더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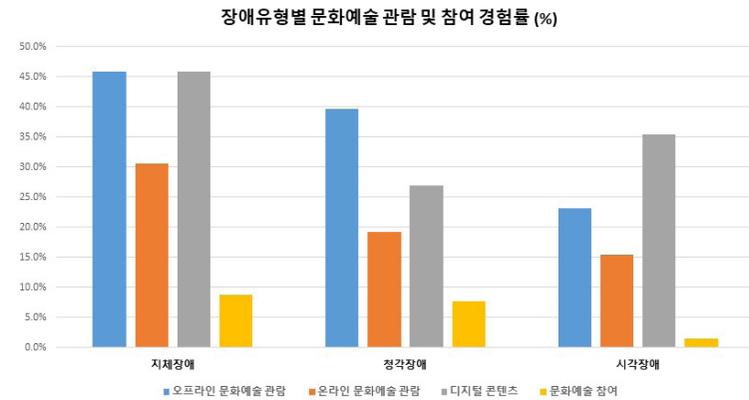
58

## 장애정도별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경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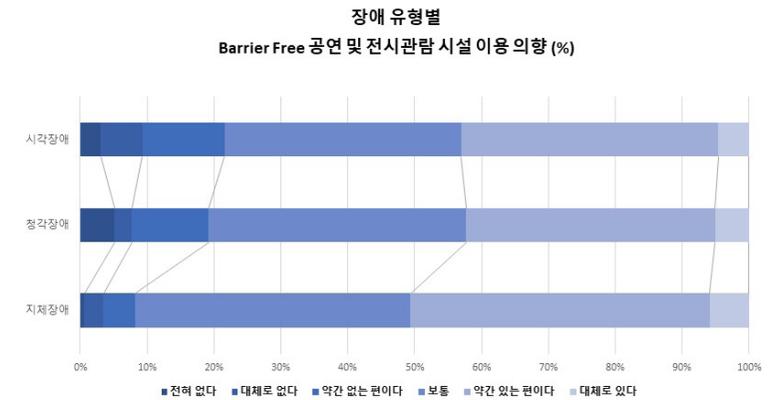
60

## 장애유형별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경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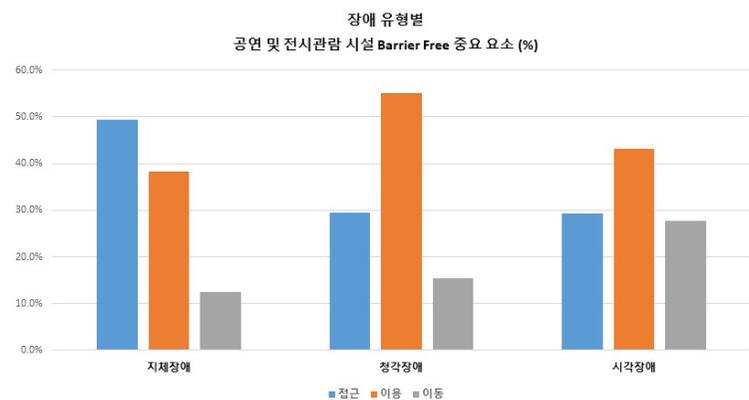
61

## Barrier Free 문화시설 이용 의향



63

## 문화시설 Barrier Free 중요요소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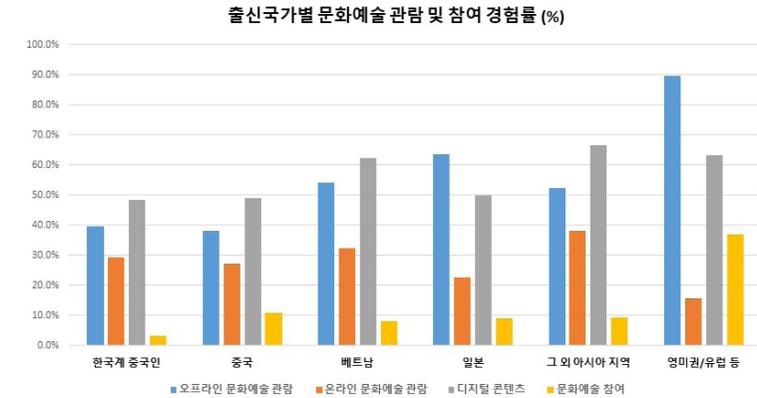
##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

- 장애 정도 보다는 장애 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시각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 유형 보다 문화약자로서 취약성이 더 두드러짐
- 문화시설의 Barrier Free 중요요소도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 Barrier Free 문화시설의 이용 의향은 모두 높게 나타남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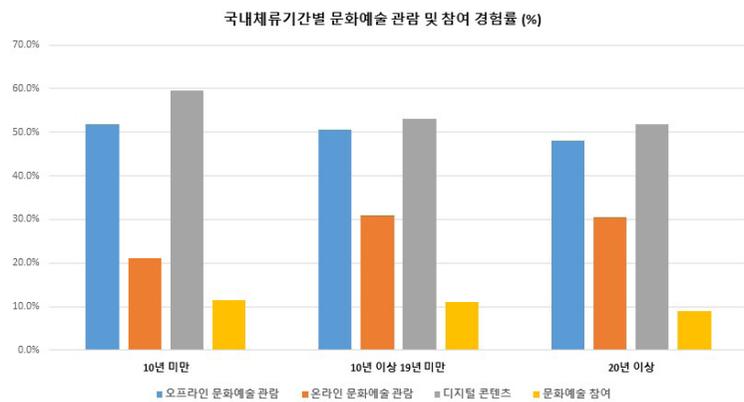
### III-5. 문화약자로서 다문화 가족

### 출신국가별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경험 비교



67

### 국내체류기간별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경험 비교



66

### 문화약자 관점에서 본 다문화 가족

- 국내 체류기간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출신국가 별로는 차이가 많이 나타남.
- 국내 체류기간별 차이 부재는 체류기간 증가가 문화적 노출이나 활동 기회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
- 출신국가별 차이를 볼 때 다문화 가족 모두를 문화약자로서 바라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 다만, 오프라인 문화예술 관람과 디지털 콘텐츠 소비 수준이 높은 일본이나 구미 출신 경우에도 문화예술 참여 분야에서는 내국인 시민 보다 수준이 낮음.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관심 필요

68

주요 이슈, 관심 집단에 대한 후속  
정성 조사(FGI 등)  
필요!

감사합니다!

주제 발제 ②

# 문화향유 활동의 변화와 정책방향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최보연**



정동극장, 아트선재센터, 세종솔로이스츠 등에서 공연기획과 마케팅 업무를 경험했고, 미국 뉴욕대학교 공연예술행정학 석사, 영국 워릭 대학교에서 창의성 담론에 관한 연구로 문화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일했으며, 현재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3년 제3회 서울문화예술포럼

# 문화향유 활동의 변화와 정책방향

최보연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1

1

## 문화향유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변화

3

### 오늘 나눌 이야기\_개요

- 1 문화향유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변화
- 2 현재 문화향유 지원 정책의 특성, 관점과 한계
- 3 문화향유를 위한 정책 방향

2

문화(예술)에 대한  
관점 변화

문화향유의 사회적  
가치 부각

개인의 가치관  
변화

기술혁신+미디어  
환경변화

문화활동 주체로서  
역할, 활동 강화

4

### 1) 문화(예술)에 대한 관점 변화

#### ▶ 예술을 이해하는 방식과 관점의 변화

- 명사(작품, 결과)으로서 예술  
 ...→ **“동사(과정)”으로서 예술**
- **‘과정’으로서의 예술활동이 가진 사회소통 측면에 주목**



※ EBS 다큐프라임: 평균 61세, 지하철 청소년노동자들의 현대무용 도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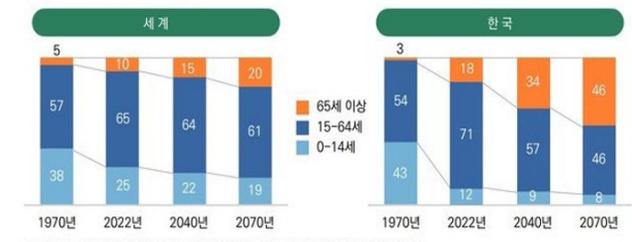
### 2) 개인의 가치관 변화

#### ▶ 1인 가구 증가, 인구 세대 구조의 변화, MZ세대 + 5060세대 문화소비층 성장

1인 가구 추이 (단위: 만 가구)



[그림]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자료 출처: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도자료, 2022.09.05

#### ▶ 개인주의적 가치관(개인의 선택과 취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현상과 연계

#### ▶ 문화에 대한 관점 :

- “문화향유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결과, 작품 중심의 문화 이해를 반영한 질문?!)
- 공연장, 전시장에 박제된 것이 아닌 **라이프스타일로 이해되는 ‘문화’**
- 문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살아가되,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인간적 가치 지향의 의미 내재



올로



소확행



워라밸



언택트(비대면)

#### ▶ 살롱문화의 다변화: 취향관, 문래당1063, 트레바리, 문토, 크리에이터 클럽 등

- 사회적 기준(나이, 직업, 지위)이 아닌 ...→ **‘개인의 공통된 취향, 취미’**에 집중
- 결과보다는 **과정, 공유와 소통방식, 타인에 대한 존중** 등의 개인의 가치관이 살롱문화 확산에 기여





2

## 현재 문화향유 지원 정책의 관점과 특성, 한계

13

### 2) 보편적 문화복지 강조 vs 시혜적 관점

- ▶ (중앙)문화향유 정책 : 90년대 중반 이후 ‘문화복지’ 개념과 연동, 발전해 온 맥락
-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혜적 뉘앙스가 잔존
- 특정계층, 집단을 위한 ‘물리적(주로 경제적)’ 격차 해소
- ▶ 그 간의 문화향유 관련 주요 정책 지원
- 법령: 문화예술진흥법\_문화소외계층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문화향유 지원의 정책목적

- ▶ (문화권) 기본권으로서 문화향유
- ▶ 향유권확대, 향유기회 제공 ...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국가사회발전에 기여’
- ▶ 궁극적 가치지향에서 느껴지는 추상성·모호성, 건조한 ‘정책’ 언어
- ▶ **개인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 맥락, 의미를 가지는가?**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 (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문화기본법

###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 (2022.0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문체부)**

□ **과제목표**

- 취약계층 등 문화 누림 기회 확대로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 전통문화, 한국어 등 우리 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

**[약속1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 만들겠습니다.**

-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훌륭한 스포츠 복지 실현
-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문체부)**

□ **과제목표**

- 예술의 독립성·자율성 보장과 함께 공정하고 책임있는 예술지원체계 구축
-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와 예술산업 미래 경쟁력 제고

### 3)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 정책반영에서의 지체현상

#### ▶ 문화향유의 다양성, 입체성, 중층성 파악을 위한 정책 미비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 '관람율' (빈도수) 중심의 향유 이해
  - 대표지수는 '직접' 관람률 :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경험
  - 매체를 이용한 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
  - 행사 참여 경험(창작/발표), 문화예술교육 경험, 동호회 활동 경험, 자원봉사/기부활동 경험
  - 문화예술행사관람/교육에서의 걸림돌 문항 有

- 문화향유 제약요소 파악의 피상성 (물리적 요소 + 심리적 요소)
- 개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변화, 동기, 가치에 대한 파악 어려움
- 온라인 향유활동(창작 등)의 확산 양태에 대한 포착 X
- 배리어프리 관점 적용 X

## 3

### 문화향유를 위한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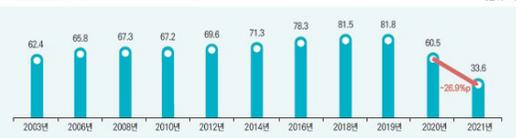
#### 1.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

##### 1) 문화예술행사 관람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33.6%로 2020년에 비해 26.9%p 감소

-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020년 60.5%보다 26.9%p 감소한 33.6%로 나타남
- 2003년 62.4% 대비 28.8%p 감소한 수치임

그림 2-1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추이



- 2020년 대비 2021년 관람률은 모든 분야에서 감소하였으며, '영화'의 감소폭이 25.9%p로 가장 크고, '대중음악/연예'가 5.9%p, '뮤지컬'이 4.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문화누림 대표 지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회복세, 전년 대비 24.5%포인트 상승

문화누림의 대표 지표인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이하 관람률)'은 58.1%로 전년 대비 24.5%포인트 상승해 국민의 문화예술 누림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19년) 81.8% → ('20년) 60.5% → ('21년) 33.6% → ('22년) 58.1%

그러나 연령별, 소득수준별 회복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고연령층(70세 이상)의 관람률은 지난해 5.6%에서 14.8%로 9.2%포인트 상승한 반면, 저연령층(20대)의 관람률은 63.8%에서 90.6%로 26.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층(월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의 관람률이 24.7%포인트 상승한 것에 비해 저소득층(월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의 관람률은 2.7%포인트 상승해, 고연령층과 저소득층의 문화누림 회복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자료: 2022 국민문화예술활동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문체부 보도자료 발췌 (2022.12.29)

### 1) '적극적, 주체적, 즐거운 권리'로 인식되는 향유권 관점 적용

- ▶ 향유(享有) : 누리어 가짐 →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 + 소유의 개념 내재
- ▶ 문화향유 = 적극적 주체로서 개인의 '즐거움' 권리

〈표 6-4〉 용어의 구분: 향수(享受)와 향유(享有)

구분	의미	공통점	차이점
향수 (향수) (예문)	① 어떤 혜택을 받아 누림 ② 예술적인 아름다움이나 감동 따위를 음미하고 즐김	누리다	'수동적' 의미 내재
향유 (향유) (예문)	• 복지혜택을 향수하다, 미술작품을 향수하다 '누리어 가짐' (누리다, 가지다) 즉 소수(消受)하다	즐기다	'적극적·소유적' 의미 내재

자료: 조현성·최보연(2020) 예술향유정책 분석 및 방향 연구, p.12 〈표1-1〉 발췌

자료: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양현미 외, 2023예정)

## 2) '문화'개념에 대한 포용적, 입체적 접근

- ▶ 여전히 특정장르의 관람 - 문화향유로 등치: '문화' 개념의 확장적 이해 필요
  - ▶ 기술적 정의(좁은 의미의 예술 혹은 삶의 양식)를 넘어서
  - ▶ 문화의 3층위: 표현문화, 관계문화, 의식문화



출처: 정중은·한성아(2019) 지역혁신체계에서 문화의 역할: 유추인과 유바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과문화, 제4권 제4호, p.67 [그림 5] 발췌

자료: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양현미 외, 2023예정)

## 3) 입체화되는 향유양태 반영을 위한 정책적 노력

- ▶ 관람을 넘어 문화향유 활동 입체성, 다양성 반영하기 위한 노력
  - 향유의 입체적 밀도감 포착
    - 문화향유에 대한 인식 변화, 실제 활동 양태의 입체성을 추적하기 위한 '질적' 조사 도입 등
  - 고관여자-저관여자-무관심자 등 그룹별 특성의 파악
    - 전통적 관람 빈도에 따른 문화향유 질적 수준을 판단하지 않는 것을 의미
- ▶ 문화향유활동 유형(안) 도출 - 현재의 정책 지원 사업 간 크로스 체킹 필요

〈표 6-7〉 문화향유 유형 분류(안)

구분	관람형		매개된 경험형 (사용/행사 교육, 워킹숍 등)	창작/생산형 (개인+공동)	생활문화 결합형	자원봉사-기부형
	전통적 관람형	참여적 관람형				
조직적 정의(안)	표현문화로 분류된 창조적 생산활동 및 결과물(작품)을 보거나 듣는 유형	결과적으로는 표현문화로 분류되나 창조적 생산활동 과정에서 향유자의 주체적 참여가 가능한 향유 유형	문화적 생산과정에서 향유자의 매개된 경험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유형	문화적 생산과정에서 향유자의 주체적인 생산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거나 진행되는 유형	개인의 일상적 삶과 문화적 생산활동의 결합도가 높게 나타나는 향유활동 유형	문화적 생산 소비 유통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 재능(시간, 금전 등)을 부여하여 문화활동의 지속성이나 지원을 지원하는 향유유형
문화향유 포용도(안)	표현문화	표현문화 (관계문화)	표현문화 (의식문화)	표현문화 (의식문화)	표현문화 (관계문화, 의식문화)	(표현문화) (관계문화) (의식문화)
특성 (향유자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장 일반적인 향유형태</li> <li>공연, 전시, 영화, 축제 등에서의 관람행위</li> <li>대개의 경우 문화적 생산 결과를 형성 과정에서 향유자의 주체적 개입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li> <li>향유활동의 목적은 대개 개인적이나 일부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추구할 수도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머시브극이나 인터랙티브 전시/축제에서의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활동이 개입되는 향유유형</li> <li>프로젝트 기법은 전문예술가나 기획자에게 의해 집약되나, 실연 과정에서 향유자의 주체적 개입 정도가 클수록 참여적 성격이 강화되고, 문화적 생산(결과물) 반영되는 특성 나타남</li> <li>향유활동의 목적은 개인적일 수 있으나, 일부 사회적 가치지향 추구도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현문화에 관한 교육이나 연극행사, 혹은 워크숍 등의 활동</li> <li>주로 표현문화 영역에서 향유자의 관심도 개발 및 심화, 혹은 지식 제고를 위해 조직된 활동 등을 포괄</li> <li>관계문화나 의식문화 영역에서의 향유자의 관심도 개발, 제고를 위한 활동도 포함 가능</li> <li>활동목적은 개인적·사회적 다양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유자가 문화적 생산활동에 적극적 주제로 참여하는 활동 유형</li> <li>예술동호회 혹은 소모임 기반 공동활동이나 개인적 활동도 포함</li> <li>표현문화 결과물에서 생산적 주제로 활동하는 것이 특징적임</li> <li>활동목적은 개인적일 수 있으나, 일부 사회적 가치지향 추구도 가능</li> <li>개인의 일상적 삶과 문화적 생산활동의 결합도가 높을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유자가 자신의 생활양식, 삶의 방식과 관련된 관심도를 가지고 이를 문화적 생산활동에 결합시키는 방식의 활동 유형</li> <li>예술중심 중심의 표현문화 영역에만 한정된 것을 넘어서서 개인/사회적 정체성이나 삶의 방식 등 이차적 결합된 유형일 수 있음</li> <li>활동목적은 개인적일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지향 추구도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활동 생산의 직접적 주체는 아닐 수 있으나, 문화예술활동의 창작 및 보존, 유통(소비)과정 및 활동의 지속성을 지지 지원하기 위한 활동 유형을 의미</li> <li>문화 관련 행사나 예술활동 등을 위한 금전적인 기부, 문화적 활동 관련 공간내 혹은 지원의 표현양식으로 개인의 시간과 재원을 투입하는 경우에 해당</li> <li>활동목적은 개인적일 수 있으나, 사회적 가치지향 추구도 가능함</li> </ul>
문화적 생산 결과물 생산에서의 향유자 주체적 개입 정도	약 ~ 중	약 ~ 중	약 ~ 강	강	중 ~ 강	중 ~ 강
사회적 가치 지향성 (활동목적)	약 ~ 중	약 ~ 중	약 ~ 강	약 ~ 강	약 ~ 강	약 ~ 강
문남 기획사업 외(카타) 정책사업 예시	문남 해피 사업 신나는 예술활동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예술교육, 일반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생애문화재단 운영 (문화예술교육 공모)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ARKO 예술·취미 기부활동 예술기관, 축제 등에서의 자원봉사 등
(비교) 국민문화향유실태조사 현황* (2019년 기준)	81.5%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9.1% (학교교육 이외 문화예술교육 관람률)	7.7% (동호회 참여 관람률)	-	9.0% (문화자원봉사 관람률)

\* 2021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2)의 경우, 최근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람률, 활동률이 급속하게 감소했음이 나타나므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기준 관람률 및 참여율을 기재하였음

자료: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양현미 외, 2023예정)

## 3) 입체화되는 향유양태 반영을 위한 정책적 노력

- ▶ 문화향유 제약요소(걸림돌)에 대한 입체적 파악 필요
  - 온라인 WEB 조사의 한계 (사각지대 발굴 제약성), ex. 가구면접 조사 방식
  - 걸림돌 요소 발굴: 시간, 돈, 인프라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구조적 문제, 개인 차원의 심리적 거리감 등
  - 고관여자-저관여자-무관심자
  - 장애인 문화향유?! (202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10,060명 중 334명 장애인 등록/미등록포함)
- ▶ 배리어프리 향유 환경의 보편화 + 제도화
- ▶ 향유 진작을 위한 간접지원 방안 모색 (ex. 서울청년문화패스)

**[참고문헌]**

대한민국정부 (2023)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 국민문화예술활동 조사  
서울문화재단 (2021) 2020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양현미 외 (2023예정)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지역문화진흥원  
조현성, 최보연(2020), 예술향유정책 분석 및 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지연, 최보연 (2020), 예술향유 인식 및 양태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연극학 제3권2호, 199-224  
최보연 (2022) 모두를 위한 정책, 고민해야 할 지점들: 보편적 권리로서 문화예술향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웹진 A-Square, 2022.11. <https://asquare.arko.or.kr/vol01/square07/>

초청 강연

# 사회트렌드 변화와 문화향유

지난 3년 간 코로나가 둘러싼 환경 속에서 대중들이 어떤 경험을 축적했고, 그 과정에서 경험한 욕구의 결핍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현시점의 사회트렌드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향유 경험과 향후 전망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주)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사

**윤덕환**



국내 리서치산업의 퍼스트 무버인 (주)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콘텐츠사업부 총괄로서, 한국 문화 및 사회문제 심리학회 학외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최신 트렌드를 기획, 조사해 소비자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트렌드모니터(2020~2023)>와 <대한민국 트렌드 시리즈(2016~2019)> 등을 통해 대중들의 소비 심리와 흐름을 전망하고 주목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서울문화예술포럼 운영위원회

공동회장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서울예술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 배우
	최태지	前 국립발레단장
운영위원장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경훈	한국공연관광협회 회장
	김노암	아트스페이스휴 대표, 미술은행 심의위원
	김은균	함께걷는사람들 대표, 늘푸른연극제 집행위원
	김지현	코리안컬처리더스 대표, 가톨릭대학교 음악학과 겸임교수
	김희선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김희정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 교수
	남명렬	배우, 前서울연극협회 부회장
	박귀섭	비주얼아티스트, 사진작가
	박상연	박앤남공연제작소 대표, 연출가
	박숙희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과장
	박은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박재홍	한국발레협회 회장
	박정의	서울연극협회 회장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
	방지영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이사장
	서성교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손수연	단국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학과 교수, 오페라평론가
	손정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송형중	서울특별시장 문화수석
	신현수	인천사람과문화 이사장
	안두현	과천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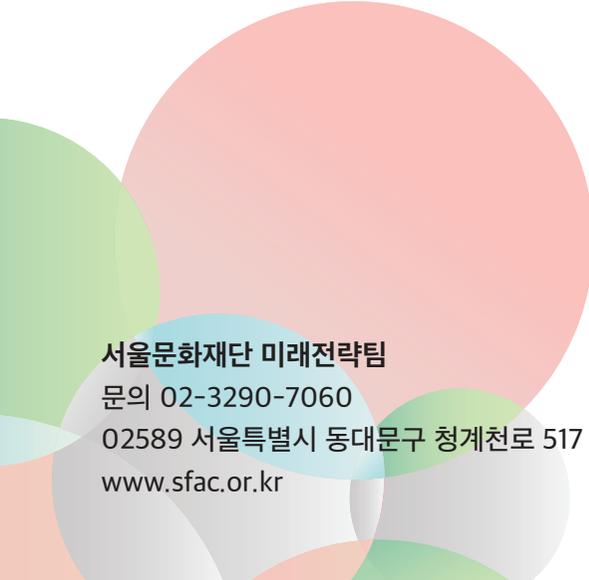
운영위원

운영위원

안현규	축제 연출가, 前강동선사문화축제 총연출
양정웅	극단여행자 대표, 평창동계올림픽 총연출
우주호	성악가, 한양대 ANMP 주임교수
유은선	국악평론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출강
이경재	오페라 연출가, 前서울시오페라 단장
이광복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이광수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이다현	리어예술단 대표
이범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영석	위드회계법인 대표이사
이유리	서울예술단 단장 및 예술감독, 서울예술대학교 예술경영전공 교수
이종규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
이창희	한국예술문화정책연구원 원장
이철구	한국음악협회 이사장
이해준	한양대학교 무용예술학과 학과장
이효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임대일	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
임정혁	한국소극장협회 회장
장인주	무용평론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장일범	음악평론가, CPBC-FM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진행자
정용석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조남규	대한무용협회 이사장
차현석	극단후암 대표, 영국작가협회 회원
황준형	극단해보마 대표, 연출가



서울문화예술  
포럼



서울문화재단 미래전략팀

문의 02-3290-7060

0258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www.sfac.or.kr](http://www.sfac.or.kr)

본 책자의 무단 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